

충남지역 소도읍의 개발수준 측정 및 개발방향

송 두 범
(宋斗範)

충남발전연구원
지역개발실 연구원



I. 서 론

1. 문제제기

소도읍은 도시와 농촌의 가교적 위치에서 지역의 균형적 개발전략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계획과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임으로써 적절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김선기 외, 1980, p.1).

우리 나라는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 과정

을 통해 국가총량적 측면에서는 급속한 고도 성장을 경험해 왔으나 국토공간적 측면에서는 경제적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대도시 위주의 지역정책을 추진함으로써(이정환 외, 1989, p.91) 도시와 농촌의 중간에 위치한 소도읍은 개발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성장의 정체와 기능의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도농간의 불균형적인 발전의 심화와 그것에 따른 도시·농촌문제의 반복되는 누적적 악순환과정에 따른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요구가 국가적인 해결과제로 대두하였다.

따라서 소도읍의 체계적인 분석과 육성방안에 대한 필요성은 소도읍이 갖는 기능과 역할이 국토공간의 정주체계상 중간에 위치하여 대도시와 농촌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동시에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소도읍은 배후 농촌지역에 대한 일차적 중심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로서 농촌에 없는 사회, 문화, 복지 서비스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농촌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고, 농어민이 소도읍을

중심으로 정주할 수 있는 적절한 생활여건을 조성하여 대도시로 향하는 유동인구를 흡수함으로써 대도시의 과밀화현상을 원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노춘희, 1980, p.2) 국토공간상에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어 이를 통해 국가정주체계의 안정과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배후농촌지역의 주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소도읍의 개발은 대도시 문제의 해결과 농촌개발이라는 쌍방적 관점에서 모색하여야 하며 결코 대도시의 필요성에 의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대도시적 시각에서 소도읍의 맥락을 다루어서는 안된다.

소도읍에 대한 연구는 최근 지역생활권 및 지방정주권의 설정과 개발에 대한 논의와 함께 관계전문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으나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개념적 수준의 논리를 주장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을 뿐 현실적으로 그것에 접근하기 위한 이론의 개발이나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각 소도읍의 개발수준을 지표를 활용하여 측정하고 개발잠재력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소도읍에 대한 개발계획수립의 방향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지표를 이용하여 소도읍의 개발수준을 측정하고 개발방향을 모색하여 향후

농촌발전과 연계한 소도읍의 개발 및 육성방안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충청남도 소도읍간 격차정도를 변이계수를 활용하여 측정한다.

둘째, 충청남도 21개 소도읍의 상대적인 개발수준을 측정한다.

셋째, 군청소재지와 일반읍의 개발수준, 인구규모별 소도읍의 개발수준을 측정하여 소도읍 개발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3. 연구범위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시간적 범위로 1993년 자료를 사용한다. 내용적 범위로 소도읍의 범위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없기 때문에 기존연구에서 대체로 읍과 군청소재지인 면을 소도읍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위구분은 이론적인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연구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행정구역상 읍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는데 이는 소도읍의 개념이 모호하고 통계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구득 및 일치를 위해서이다.

또한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1993년 현재 충청남도의 21개 읍에 한정하였다.

4.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분석기법으로 표준화치분석법(standardized score analysis)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지표구성요소와 관련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발간한 한국도시연감(1994)을 활용하였다. 구성요소와 관련된 자료 중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는 자료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정부기관이 발간한 자료에 대한 신뢰도(reliability)를 고려하여 수정 및 보완을 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한편 소도읍개발수준 측정지표를 5개부문으로 분류하고 그 하위에 총34개의 개별지표를 선정한 다음 이를 대상으로 표준화치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소도읍간, 군청소재지읍과 일반읍, 인구규모별 지수를 산출하여 순위를 정하였다.

5. 연구제한

1) 본 연구는 5개부문 34개의 개발지표를 활용하여 충청남도 21개 소도읍 개발수준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표만 가지고 개발수준을 완전하게 측정하기에는 제한점을 갖는다.

2) 소도읍의 개발수준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종단적 연구에 의해 그 차이가 있으나 시간적인 변화에 따른 종단적인 연구를 하지 못하고 횡단적으로 연구한 점에서도 제한점을

갖는다.

3) 소도읍개발수준의 측정은 객관적인 지표뿐 아니라 주관적 지표를 가지고 측정할 때보다 설명력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지표만 활용하여 개발수준을 측정함으로써 제한점을 갖는다.

Ⅱ. 소도읍개발수준 측정의 의의

1. 소도읍개발의 필요성

소도읍은 행정중심지로서의 기능, 경제주체로서의 기능, 지역사회개발의 거점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소도읍의 기능은 소도읍의 기본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소도읍은 입지와 규모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지역특성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최상철, 1977, p.16).

소도읍의 기능화 또는 개발은 이러한 소도읍의 일반기능과 특수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강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소도읍의 개발은 소도읍이 본래 가지는 고유한 역할이나 작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석홍, 1995, p.185).

소도읍개발은 소도읍의 물리적 개발 또는 경제개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개발을 내포하고 있다. 즉 소도읍지역 전체의 생산소득의 수량적 증대뿐 아니라 사회적 생활환경의 쾌적성이 확보되고 주민의 복지향상이 보장되며 소도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개발

의식에 호응하여 스스로 개발의 원동력이 되게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최상철, 1977, p.25).

그러나 우리 나라의 공간정책은 국토공간을 대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왔다. 따라서 성장의 잠재력이 있는 대도시를 집중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소도읍 및 농촌지역사회는 상대적으로 낙후를 면치 못하였다.

이와 같이 성장거점이론에 바탕을 둔 국토개발은 첫째, 발전도상국에서 국가경제성장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규범적 논의와 둘째, 발전효과를 짧은 기간에 이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인구규모이며 셋째, 이론적으로 불균형성장이론의 타당성이 더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이다(김형국, 1984, p.179).

한편 우리 나라의 경우 불균형성장이론인 성장거점개발전략을 추진한 결과 성장의 이익이 주변지역에 영향을 주는 확산효과가 자연되거나 낮게 나타나는 반면 주변지역의 자원이 중심지역으로 집중되는 역류효과가 발생하여 중심지는 계속성장하고 주변지역은 침체하는 악순환을 계속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을 해소하고 지역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충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소도읍의 개발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소도읍개발은 도시와 농촌의 중간적 위치에서 기능적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것이다. 60년대 이후 우리 나라의 급격한 산업화는

도시의 성장을 촉진하고 도시와 농촌을 직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대하여 소도읍의 개발은 도시-소도읍-농촌의 체계적 통합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도시문제와 농촌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전략적 의의를 내포하고 있다.

둘째, 소도읍개발은 산업입지적 특성에 맞추어 그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용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김형국, 1977, p.161). 또한 농촌지역에서 생산된 농산품을 도시시장으로 매개하는 유통기능도 요구된다. 따라서 소도읍의 중심성이 확립되면 지역사회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다.

셋째, 소도읍의 개발은 소도읍의 생활환경시설을 확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오늘날 발전된 국가나 어느 정도의 발전수준에 이른 국가의 관심은 경제적 생존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생활의 질이라는 보다 더 인간적 요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넷째, 대도시 인구밀집 방지와 노동력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서 도시지향성 농촌인구를 지역 내에 정주케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 이 정책방향에 효율적인 장소의 하나가 소도읍이다(김영섭, 1985, p.41).

다섯째, 소도읍의 개발은 주변농촌지역발전의 중심지로서 광역적 개발의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도읍이 낙후된 농촌지역사회의 성장거점으로서 주변영향권으로부터 원료·자원 등을 흡수함과 아울러 소득효과를

파급시켜 발전을 유도하도록 한다.

여섯째, 농촌소득의 향상과 배후농촌지역의 정신, 문화적 수준의 제고는 사회복지증진을 요구한다. 의료, 교육 등의 사회적 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집적경제를 나타낼 수 있는 소도읍규모의 인구 및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김형국, 1977, p.161).

일곱째, 소도읍개발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의 의식구조와 형태 및 생활양식을 근대화해 나가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실시라는 정치행정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농촌지역사회의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소도읍에 대한 주민인식의 전환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도읍은 배후농촌지역의 경제적, 정신적, 문화적 중심지로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동시에 쇠신확산의 중간매개지로서도 긴요하기 때문에 소도읍 개발은 농촌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도읍과 배후농촌의 유기적 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최근 우리 나라의 경우 중주도시화현상의 심화와 농촌인구의 대량이출로 인한 취락의 계층체계상 불안정이 지속되어 소도읍의 기능을 계속 약화시켜 오고 있다. 따라서 소도읍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일은 하위 정주체계를 보강하고 농촌지역의 경제활동과 인구정착기반을 마련하여 삶의 매력을 잃은 농촌을 살리

는 지름길이다.

2. 소도읍개발수준 측정의 의의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인구유출이 심한 농촌지역에 취업기회 확대와 서비스시설의 확충을 강화하고 있다. 농촌의 중심지인 소도읍에는 농공단지조성 등 공업기능을 보강하고 이곳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육성을 위한 직업훈련소를 유치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 등 서비스시설을 확충하고 이들 서비스시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주변농촌 지역간에 교통시설을 확충 정비하여 접근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취락구조개선과 주택현대화, 도로, 상하수도, 쓰레기장 등 생활기반시설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1991, pp.39-41).

이와 같이 소도읍개발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도 불구하고 소도읍의 인구는 대부분 감소하는 추세이고 산업경제적 측면에서도 도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낙후되고 생활환경도 그 질이 매우 열악하며 교육, 문화, 복지시설도 취약하다. 그것은 재정력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도시에 비하여 정책관련자의 관심이 희박한데서 그 요인의 일부를 찾을 수 있다(김홍석, 1995, pp.260-261).

따라서 소도읍 개발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소도읍간 상대적 개발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평가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투자재원이 제한되어 있는 개발사업에서

는 각 지역사회의 상대적인 개발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입각한 개발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러나 일정한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개발정도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측정하는 일은 쉽지 않으며 아직도 측정지표의 개발이나 측정방법상의 문제들로 인해 개발수준측정 그 자체에 관한 연구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8, p.9).

Ⅲ. 충청남도지역 소도읍의 개발수준 측정

1. 분석설계

1) 분석틀

지역사회의 개발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기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요인분석과 표준화치분석기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이란 복합적으로 상호연관된 다양한 변수들을 상관성이 높은 변수끼리 집락을 형성하여 보다 적은 수의 새로운 대표적 성분으로 줄여서 본래 변수들의 분

산 대부분을 설명하려는 통계기법으로 그 중에서도 주성분 분석방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표준화치 분석(standardized score analysis)은 관찰치의 산술평균으로부터 각각의 관찰치가 어느 정도 괴리되어 있는 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질적인 자료들을 상호비교할 수 있는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치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소도읍 개발수준을 측정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요인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가 표준화치분석결과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최영출, 1991, pp.22-23).

2) 측정지역 선정

본 연구의 측정소도읍은 앞에서 언급한대로 충청남도의 21개 읍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표 1>과 같다.

3) 측정지표 및 지수산출

(1) 지표산출

개발지표 내지 사회지표란 특정지역의 개발

<표 1> 측정대상 소도읍

구 분	1만 미만	1 ~ 3 만	3 만 이상
군 청 소재 지	염치읍, 성거읍	금산읍, 서천읍, 청양읍, 태안읍, 당진읍	조치원읍, 논산읍, 부여읍, 홍성읍, 예산읍,
일 반 읍	-	강경읍, 연무읍, 장항읍, 광천읍, 삼교읍, 대산읍, 안면읍, 합덕읍	성환읍

정도가 어느 수준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통계적 측정치이기 때문에 개발의 구성요소로서의 부문을 결정하고 그 부문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지표들을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측정지표를 작성하여 이용하는 학자나 기관마다 측정지표의 산출을 위해 사용한 변수가 상이할 뿐 아니라 측정지표 산출공식도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개발수준을 객관적으로 완벽한 수준에서 지표로 표현하여 측정한다는 것이 극히 어려운 일이며 사용자의 견해와 작성목적, 자료구득 가능성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측정지표의 선정을 위한 일반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김형국, 1988, pp.58-59).

첫째, 대표성 기준으로 측정지표는 지역사회의 개발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지표를 망라하고 지역사회의 개발수준을 나타내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표를 선정하여야 한다.

둘째, 구득가능성 기준으로 기술적으로 측정 가능하고 또 현실적으로 구득이 가능한 지표를 선정하여야 한다.

셋째, 비교의 객관성 기준으로 지역간의 비교가 불가능한 만큼 편차가 매우 큰 지표 또는 일부지역에서 지표를 수집하기 곤란한 지표는 가급적 제외시키면서 지역간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야 한다.

넷째, 반복성 기준으로 선정된 지표가 시간의 변화에 관계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적용가능한 지표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정책성 기준으로 지표를 통한 지역별 발전수준을 측정하는 것은 향후 지역개발 정책을 제시할 기초자료를 생산하는데 일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역정책의 분석에 용이한 지표를 선정하여야 한다.

여섯째, 단순성 기준으로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간단한 지표를 선정하여야 한다.

일곱째, 효과성 기준으로 정(+)과 부(-)의 효과를 내포하는 지표를 구분하지 않고 선정해야 하나 결과분석에서는 이들 요인을 따로 유의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1) 김선기는 ①소득, ②산업기반, ③서비스시설, ④교통 통신, ⑤의료, ⑥교육, ⑦생활환경 등 7개 부문, 16개 지표설정.

최영출은 ①인구, ②교육 문화, ③산업 경제, ④재정, ⑤사회복지 등 5개 부문 37개 지표설정.

김기재는 ①인구고용, ②지역경제, ③교통 통신, ④주거환경, ⑤교육 의료 복지, ⑥지방재정 등 6개 부문 44개 지표설정.

대전광역시 ①경제적 활력성, ②생활의 안정성, ③도시의 쾌적성, ④도시생활의 편의성, ⑤ 문화적 성숙성, ⑥ 도시의 안전성 등 6개 부문, 25개 지표설정.

중앙일보 ①건강한 생활, ②안전한 생활, ③교육복지, ④경제생활, ⑤편리한 생활, ⑥문화생활 등 6개 부문, 36개 지표 설정.

한표환 외는 ①건강성, ②경제성, ③안전성, ④쾌적성, ⑤편리성 등 5개 부문, 68개 지표 설정.

〈표 2〉 측정지표 설정

부 문	지 표	단 위	효 과
I. 지역경제	1. 저소득층 주민비율	%	—
	2. 1인당 예금액	백만원	+
	3. 1000인당 제조업체 종업원수	인	+
	4. 1인당 공공건설 사업비	백만원	+
	5. 100인당 금융기관 수	개소	+
II. 교통통신	6. 1000인당 대중교통대수	대	+
	7. 차량1대당 주차장 면적	m ²	+
	8. 1000인당 자가용 대수	대	+
	9. 도로율	%	+
	10. 도로포장율	%	+
	11. 1000인당 공중전화 대수	대	+
	12. 1000인당 우편시설 수	개소	+
III. 생활환경	13. 상수도 보급율	%	+
	14. 하수도 보급율	%	+
	15. 1000인당 쓰레기 발생량	ton/일	—
	16. 평균급수량	ℓ/일	+
	17. 1인당 주거지역 변적	m ²	+
	18. 주택보급율	%	+
	19. 1인당 시장면적	m ²	+
	20. 1000인당 일반식품접객업소 수	개소	+
IV. 교육·의료 및 사회복지	21. 1000인당 의료인수	인	+
	22. 1000인당 의약품 판매업소 수	개소	+
	23. 1000인당 병상수	개	+
	24. 1000인당 영세민 수	인	—
	25. 교사 1인당 학생수	인	—
	26. 1000인당 학원수	개소	+
	27. 1000인당 유치원수	개소	+
V. 공공안전 및 재해	28. 1000인당 화재발생피해액	천원	—
	29. 1000인당 소방공무원 수	인	+
	30. 1000인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건	—
	31. 1000인당 범죄발생건수	건	—
	32. 범죄검거율	%	+
	33. 1000인당 관공서 및 주요기관 수	개소	+
	34. 1000인당 공무원수	인	+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지표선정기준을 고려하고 선행연구(김선기, 1989, p.28 ; 최영출, 1991, p.6 ; 김기재, 1993, p.181 ; 대전광역시, 1994, p.8 ; 중앙일보, 1995, p.5 ; 한표환, 1995, pp.65-67)"에서 설정한 지표를 참조하여 5개부문 총 34개로 조정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많이 개입되었으며 소도읍별 편차가 큰 지표도 수용하고, 한국도시연감에 수록된 자료만 선정하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2) 지수 산출

소도읍 개발수준을 측정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치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측정지표가 갖는 원재료를 가지고 평균이 0이며 표준편차의 크기가 같은 성질을 갖는 Z-score의 분포로 표준화 하였다. 그리고 개발 지표들의 Z-score를 산술평균하여 부문별, 도시 규모별 발전수준 지수를 구하였고, 이 지수의 산술평균치는 각 소도읍의 종합지수로 이용하였다.

한편 일반적으로 지수의 값이 커질수록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 주민비율, 쓰레기 발생량, 교사 1인당 학생수, 범죄발생건수 등은 이와는 반대로 지수의 값이 높을수록 개발수준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의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와 부의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의 지수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했으므로 부의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에 대해서는 원재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지수가 "+"일 경우는 "-"로 "-"일 경우는 "+"로 환산하였다.

4) 분석방법

충청남도의 21개 소도읍의 개발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34개의 지표를 선정한 다음 소도읍간 격차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먼저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²⁾를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소도읍간 발전수준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34개 지표별로 표준화점수를 계산하여 비교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34개 지표에 각 지표별로 Z-score를 계산하여 분포패턴을 분석하였다.

한편 지표의 적용에 있어서 문제시되는 것이 바로 각 지표간의 가중치를 결정하는 일이다. 가중치 부여와 관련해서는 가중치 부여 자체는 인정하면서 가중치의 중요성에 차이를 두지 않고 동일가중치를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즉 가중치를 설정하기 위한 이론적 지침이 없으며 의식이나 태도조사를 이용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과 노력이 많이

2) 변이계수 = S/M (S: 표준편차, M: 평균)

일반적으로 3개 이상의 비교대상간의 격차는 분산(dispersion)이나 변이(variation)의 개념에 의거하여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변이계수를 사용하였는데 지표의 변이계수 값이 클수록 소도읍간 격차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소요되기 때문에 동일가중치가 바람직한 해결방법이라고 한다. 결국 동일가중치(equal weights)를 주장하는 입장은 결국 필요성에 의한다기 보다는 통용될 수 있는 합의된 가중치 체계가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편리성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한표환 외, 1995, pp.77-78).

그러나 상이한 가중치 체계를 적용하려는 입장도 가중치를 어디에 기초하여 구성하는가에 따라 정치가의 선호, 전문가의 견해, 소비자의 현시된 선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안이나 정책방침, 그리고 공중의 선호 등의 방법을 제의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방법 외에 객관적 자료를 이용하여 가중치 체계를 구성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표간의 가중치부여에 대한 일반적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고려하지 않았다.

2. 소도읍간 개발수준 격차

소도읍간 개발수준의 격차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산출한 변이계수를 살펴보면 <표3>과 같다. 부문별로는 지역경제 부문이 0.893으로 가장 높아 소도읍간 격차가 크고 교통부문이 0.450으로 가장 낮은 평균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개발지표별 변이계수는 제조업체 종업원수, 공공건설 사업비, 병상수, 화재발생피해액, 시장면적, 범죄발생건수 등이 높게 나타나 소도읍간 격차가 크고, 자가용 대수, 우편시설

수, 주택보급률, 학생수, 범죄검거율, 공무원 수 등의 변이계수는 낮아 소도읍간 격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소도읍간 개발수준 측정

1) 부문별 개발수준 측정

충청남도 소도읍간 개발수준을 부문별로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경제부문의 개발수준이 가장 높은 읍은 논산읍(1.208)이며 그 다음이 조치원읍(0.599), 당진읍(0.553), 예산읍(0.50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개발수준이 가장 낮은 읍은 염치읍(-1.227)이며, 연무읍(-0.744), 삽교읍(-0.730), 부여읍(-0.481) 등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둘째, 교통통신부문의 개발수준이 가장 높은 읍은 청양읍(0.926)이며 그 다음이 부여읍(0.744), 논산읍(0.491), 당진읍(0.38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개발수준이 가장 낮은 읍은 삽교읍(-0.765)이며 그 다음이 안면읍(-0.606), 성환읍(-0.429), 성거읍(-0.411) 등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셋째, 생활환경부문의 개발수준이 가장 높은 읍은 금산읍(0.699)이며, 그 다음이 예산읍(0.572), 조치원읍(0.529), 장항읍(0.51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염치읍(-0.913)이 가장 낮은 개발수준을 나타냈고, 성거읍(-0.718), 삽교읍(-0.451), 안면읍(-0.410) 등의 순으로 불량하게 나타났다.

〈표 3〉 지표별 평균 및 변이계수

부 문	지 표	평 균	변 이 계 수	
Ⅰ. 지역경제	1. 저소득층 주민비율	85	0.434	평균 0.893
	2. 1인당 예금액	35	0.648	
	3. 1000인당 제조업체 종업원수	58.5	1.878	
	4. 1인당 공공건설 사업비	0.1	1.079	
	5. 100인당 금융기관 수	0.3	0.406	
Ⅱ. 교통통신	6. 1000인당 대중교통대수	48	0.745	평균 0.450
	7. 차량1대당 주차장 면적	5.1	0.681	
	8. 1000인당 자가용 대수	121.0	0.231	
	9. 도로율	6.7	0.798	
	10. 도로포장율	94.8	0.085	
	11. 1000인당 공중전화 대수	8.6	0.387	
	12. 1000인당 우편시설 수	3.6	0.228	
Ⅲ. 생활환경	13. 상수도 보급율	58.6	0.540	평균 0.571
	14. 하수도 보급율	66.5	0.385	
	15. 1000인당 쓰레기 발생량	333.3	0.684	
	16. 평균급수량	2.0	0.750	
	17. 1인당 주거지역 변적	1.6	0.725	
	18. 주택보급율	90.8	0.169	
	19. 1인당 시장면적	0.8	0.943	
	20. 1000인당 일반식품접객업소 수	9.4	0.375	
Ⅳ. 교육·의료 및 사회복지	21. 1000인당 의료인수	4.2	0.666	평균 0.523
	22. 1000인당 의약품 판매업소 수	0.9	0.525	
	23. 1000인당 병상수	4.4	1.079	
	24. 1000인당 영세민 수	80.0	0.434	
	25. 교사 1인당 학생수	22.0	0.156	
	26. 1000인당 학원수	1.2	0.447	
	27. 1000인당 유치원수	0.3	0.351	
Ⅴ. 공공안전 및 재해	28. 1000인당 화재발생피해액	1.8	1.701	평균 0.565
	29. 1000인당 소방공무원 수	4.9	0.397	
	30. 1000인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9.7	0.334	
	31. 1000인당 범죄발생건수	9.5	0.856	
	32. 범죄검거율	97.5	0.105	
	33. 1000인당 관공서 및 주요기관 수	0.8	0.387	
	34. 1000인당 공무원수	3.6	0.177	

〈표 4〉 소도읍별 표준화 점수 및 순위

구 분	지역경제	교통통신	생활환경	교육의료 및 사회복지	공공안전 및 재해	종합지수	순 위
청 양 읍	0.180	0.926	0.189	0.720	1.204	0.537	1
논 산 읍	1.280	0.491	0.145	0.658	-0.357	0.370	2
당 진 읍	0.553	0.385	0.486	0.629	-0.105	0.325	3
금 산 읍	-0.003	0.278	0.699	0.052	0.750	0.296	4
서 천 읍	0.195	-0.088	-0.044	0.305	0.667	0.173	5
예 산 읍	0.501	0.067	0.572	0.076	-0.346	0.145	6
조 치 원 읍	0.599	0.174	0.529	0.274	-0.836	0.123	7
합 덕 읍	0.106	0.174	0.074	0.081	0.074	0.085	8
홍 성 읍	0.205	-0.025	0.204	0.559	-0.597	0.058	9
대 산 읍	0.243	-0.089	-0.074	0.055	0.085	0.037	10
부 여 읍	-0.481	0.744	0.157	-0.023	-0.308	0.015	11
장 향 읍	-0.130	-0.335	0.513	-0.575	0.305	-0.037	12
강 경 읍	-0.248	-0.224	-0.007	-0.388	0.475	-0.065	13
태 안 읍	0.120	-0.026	-0.073	-0.030	-0.555	-0.094	14
안 면 읍	-0.110	-0.606	-0.410	0.348	-0.167	-0.158	15
성 환 읍	-0.069	-0.429	-0.379	-0.075	-0.146	-0.183	16
광 천 읍	-0.352	-0.193	-0.271	-0.205	-0.247	-0.211	17
성 거 읍	0.234	-0.411	-0.718	-0.760	0.140	-0.253	18
연 무 읍	-0.744	-0.236	-0.266	-0.403	0.032	-0.270	19
삽 교 읍	-0.730	-0.765	-0.451	-0.483	-0.140	-0.428	20
염 치 읍	-1.227	0.081	-0.913	-0.929	0.046	-0.490	21

넷째, 교육의료 및 사회복지부문의 개발수준이 가장 높은 읍은 청양읍(0.720)이며 그 다음이 논산읍(0.658), 당진읍(0.629), 홍성읍(0.559) 등의 순으로 우수하게 나타났다. 반면 개발수준이 가장 낮은 읍은 염치읍(-0.929)이며, 성거읍(-0.760), 장항읍(-0.575), 삽교읍(-0.483) 등의 순으로 불량하게 나타났다.

다섯째, 공공안전 및 재해부문의 개발수준이 가장 높은 읍은 청양읍(1.204)이며, 그 다음으로 금산읍(0.750), 서천읍(0.667), 강경읍(0.47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개발수준이 가장 낮은 읍은 조치원읍(-0.836), 홍성읍(-0.597), 태안읍(-0.555), 논산읍(-0.357) 등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2) 종합지수 측정

한편 부문들을 합하여 평균을 낸 종합지수를 기준으로 소도읍의 개발수준을 살펴보면 청양읍(0.537)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이 논산읍(0.370), 당진읍(0.325), 금산읍(0.296), 서천읍(0.17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염치읍(-0.490)은 가장 낮은 개발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삽교읍(-0.428), 연무읍(-0.270), 성거읍(-0.253), 광천읍(-0.211) 등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4. 소도읍 유형 · 인구규모별 개발수준

1) 군청소재지와 일반읍의 개발수준 측정

개발수준을 군청소재지와 일반읍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결과 <표5>와 같이 군청소재지의 Z-score가 평균 0.100으로 일반읍의 -0.137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고, 부문별로는 교통통신부문이 군청소재지읍의 경우 0.216이나 일반읍은 -0.300, 지역경제부문이 군청소재지읍의 경우 0.180이나 일반읍은 -0.226로 나타나 비교적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군청소재지의 경우 공공안전 및 재해부문을 제외하고 모든 부문이 부문별 평균치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거읍, 염치읍은 군청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소도읍 중 최하위권의 개발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일반읍의 경우 공공안전 및 재해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이 부문별 평균치 이하로 나타났다. 그러나 함덕읍의 경우는 거의 모든

부문이 평균치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2) 인구규모별 개발수준 측정

개발수준을 소도읍의 인구규모에 따라 측정한 결과 <표6>과 같이 인구규모 3만 이상인 소도읍의 종합지수의 평균은 0.081, 1-3만 소도읍이 0.014, 1만 미만의 소도읍은 -0.371에 불과해 인구규모가 큰 소도읍일수록 개발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1만 미만의 소도읍의 경우 공공안전 및 재해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이 부문별 평균치 이하를 나타냈으나, 1-3만인 소도읍은 지역경제와 교통통신부문을 제외한 전 부문이 부문별 평균치 이상을 나타냈다.

또한 인구규모 3만 이상인 소도읍은 공공안전 및 재해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이 부문간 평균치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3) 소도읍 유형 · 인구규모별 개발수준 측정

소도읍유형 · 인구규모별 개발수준을 상대적인 기준에 의해 분류하면 <표7>과 같다. 즉 군청소재지의 인구 1-3만명, 3만이상인 소도읍의 개발수준이 양호한 반면, 군청소재지의 인구 1만 미만, 일반읍의 1-3만, 3만이상인 소도읍의 개발수준이 상대적으로 불량하게 나타났다.

Ⅳ. 분석에 따른 소도읍 개발방향

지금까지 5개부문 34개의 지표를 활용하여

〈표 5〉 군청소재지와 일반읍의 표준화 점수 및 순위

구 분		지역경제	교통통신	생활환경	교육의료 및 사회복지	공공안전 및 재해	종합지수	순 위
군 청 소 재 지	청 양 읍	0.180	0.926	0.189	0.720	1.204	0.537	1
	논 산 읍	1.280	0.491	0.145	0.658	-0.357	0.370	2
	당 진 읍	0.553	0.385	0.486	0.629	-0.105	0.325	3
	금 산 읍	-0.003	0.278	0.699	0.052	0.750	0.296	4
	서 천 읍	0.195	-0.088	-0.044	0.305	0.667	0.173	5
	예 산 읍	0.501	0.067	0.572	0.076	-0.346	0.145	6
	조 치 원 읍	0.599	0.174	0.529	0.274	-0.836	0.123	7
	홍 성 읍	0.205	-0.025	0.204	0.559	-0.597	0.058	9
	부 여 읍	-0.481	0.744	0.157	-0.023	-0.308	0.015	11
	태 안 읍	0.120	-0.026	-0.073	-0.030	-0.555	-0.094	14
	성 거 읍	0.234	-0.411	-0.718	-0.760	0.140	-0.253	18
	염 치 읍	-1.227	0.081	-0.913	-0.929	0.046	-0.490	21
평 균		0.180	0.216	0.103	0.128	-0.025	0.100	
일 반 읍	합 덕 읍	0.106	0.174	0.074	0.081	0.074	0.085	8
	대 산 읍	0.243	-0.089	-0.074	0.055	0.085	0.037	10
	장 향 읍	-0.130	-0.335	0.513	-0.575	0.305	-0.037	12
	강 경 읍	-0.248	-0.224	-0.007	-0.388	0.475	-0.065	13
	안 면 읍	-0.110	-0.606	-0.410	0.348	-0.167	-0.158	15
	성 환 읍	-0.069	-0.429	-0.379	-0.075	-0.146	-0.183	16
	광 천 읍	-0.352	-0.193	-0.271	-0.205	-0.247	-0.211	17
	연 무 읍	-0.744	-0.236	-0.266	-0.403	0.032	-0.270	19
	삼 교 읍	-0.730	-0.765	-0.451	-0.483	-0.140	-0.428	20
	평 균	-0.226	-0.300	-0.141	-0.183	0.030	-0.137	

충청남도 소도읍 개발수준을 측정한 결과 소도읍간 개발수준이 각부문별로 차이가 있고, 군청소재지와 일반군간에도 개발수준의 격차가 있으며, 인구규모에 따라서도 부문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충남지역 각 소도읍의 개발수준을 부문별지수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와 개발방향은 다음과 같다.

〈표 6〉 인구규모별 표준화점수 및 순위

구 분		지역경제	교통통신	생활환경	교육의료 및 사회복지	공공안전 및 재해	종합지수	순 위
1만 미만	성 거 읍	0.234	-0.411	-0.718	-0.760	0.140	-0.253	18
	업 치 읍	-1.227	0.081	-0.913	-0.929	-0.046	-0.490	21
	평 균	-0.497	-0.165	-0.816	-0.845	0.093	-0.371	
1-3 만	금 산 읍	-0.003	-0.278	0.699	0.052	0.750	0.296	4
	서 천 읍	0.195	-0.088	-0.044	0.305	0.667	0.173	5
	청 양 읍	0.180	0.926	0.189	0.720	1.204	0.537	1
	태 안 읍	0.120	-0.026	-0.073	-0.030	-0.555	-0.094	14
	당 진 읍	0.553	0.385	0.486	0.629	-0.105	0.325	3
	강 경 읍	-0.248	-0.224	-0.007	-0.388	0.475	-0.065	13
	연 무 읍	-0.744	-0.236	-0.266	-0.403	0.032	-0.270	19
	장 향 읍	-0.130	-0.335	0.513	-0.575	0.305	-0.037	12
	광 천 읍	-0.352	-0.193	-0.271	-0.205	-0.247	-0.211	17
	삼 교 읍	-0.730	-0.765	-0.451	-0.483	-0.140	-0.428	20
	대 산 읍	0.243	-0.089	-0.074	0.055	0.085	0.037	10
	안 면 읍	-0.110	-0.606	-0.410	0.348	-0.167	-0.158	15
	합 덕 읍	0.106	0.174	0.074	0.081	0.074	0.085	8
	평 균	-0.071	-0.061	0.028	0.008	0.183	0.014	
3만 이상	조 치 원 읍	0.599	0.174	0.529	0.274	-0.836	0.123	7
	논 산 읍	1.280	0.491	0.145	0.658	-0.357	0.370	2
	부 여 읍	-0.481	0.744	0.157	-0.023	-0.308	0.015	11
	홍 성 읍	0.205	-0.025	0.204	0.559	-0.597	0.058	9
	예 산 읍	0.501	0.067	0.572	0.076	-0.346	0.45	6
	성 환 읍	-0.069	-0.429	-0.379	-0.075	-0.146	-0.183	16
	평 균	0.287	0.170	0.140	0.239	-0.351	0.081	

① 금산읍의 경우 종합지수 0.296으로 전체 4위의 비교적 양호한 개발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경제부문을 제외한 전부분이 부문별 평균치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저소득층 주민비율과

영세민수, 제조업체 종업원수, 도로율, 급수량, 유치원 수 등이 불량해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② 조치원읍의 경우 종합지수 0.123으로 전

〈표 7〉 소도읍 유형·인구규모별 개발수준

●:양호, △:보통, ×:불량

구 분			지역경제	교통통신	생활환경	교육의료 및 사회복지	공공안전 및 재해	종합지수	순 위
군 청 소 재 지	1만미만	염 치 읍	×	△	×	×	△	×	21
		성 거 읍	●	×	×	×	●	×	18
	1-3만	금 산 읍	△	●	●	△	●	●	4
		서 천 읍	△	△	△	●	●	●	5
		청 양 읍	△	●	●	●	●	●	1
		태 안 읍	△	△	△	△	×	△	14
		당 진 읍	●	●	●	●	△	●	3
	3만이상	조 치 원 읍	●	●	●	●	×	●	7
		논 산 읍	●	●	△	●	×	●	2
		부 여 읍	×	●	△	△	×	△	11
		홍 성 읍	●	△	●	●	×	△	9
		예 산 읍	●	△	●	△	×	●	6
일 반 읍	1-3만	강 경 읍	×	×	△	×	●	△	13
		연 부 읍	×	×	×	×	△	×	19
		장 향 읍	×	×	●	×	●	△	12
		광 천 읍	×	△	×	×	×	×	17
		삼 교 읍	×	×	×	×	×	×	20
		대 산 읍	●	△	△	△	●	△	10
		안 면 읍	△	×	×	●	△	×	15
		합 덕 읍	△	●	△	△	△	△	8
	3만이상	성 환 읍	△	×	×	△	△	×	16

주: 양호, 보통, 불량에의 기준은 상대적인 기준임.

체 7위를 차지하고 있다. 공공안전 및 재해 부문을 제외한 전부분이 부문별 평균치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도로율, 교사 1인당 학생수, 소방공무원 및 공무원 수, 범죄발생 건수 등이 불량해 이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③ 논산읍의 경우 종합지수 0.370으로 전체 3위의 매우 양호한 개발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공공안전 및 재해 부문을 제외한 전부분이 부문별 평균치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제조업체 종업원 수, 도로율, 주택보급률, 유치원 수, 범죄검거율, 소방공무원 수, 관공서 및 주요기관

수등이 불량해 이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④ 강경읍의 경우 종합지수 -0.065로 전체 13위의 개발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공공안전 및 재해부문만이 부문별 평균치 이상일 뿐 모든 부문이 평균치 이하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건설 사업비, 대중교통 대수, 주차장 면적, 도로율, 주택보급률, 시장면적, 의료인 수 및 병상수, 유치원 수 등이 불량해 이들에 대한 확충 및 제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⑤ 연무읍의 경우 종합지수 -0.270으로 전체 19위의 매우 불량한 개발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공공안전 및 재해부문만이 부문별 평균치 이상일 뿐 모든 부문이 평균치 이하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금액, 금융기관 수, 포장률, 시장면적, 의료인 및 의약품 판매업소 수, 영세민 수, 소방공무원 수, 관공서 및 주요기관 수, 범죄검거율 등이 불량해 이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⑥ 부여읍의 경우 종합지수 0.015로 전체 11위의 개발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인구, 교통통신, 생활환경부문이 부문별 평균치 이상인 반면 지역경제, 교육의료 및 사회복지, 공공안전 및 재해부문 등은 평균치 이하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 주민비율, 영세민 수, 금융기관 수, 주택보급률, 소방공무원 및 공무원 수, 범죄발생률 등이 불량해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⑦ 장항읍의 경우 종합지수 -0.037로 전체 12위의 개발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생활환경, 공공안전 및 재해부문이 부문별 평균치 이상인 반면 지역경제, 교통통신, 교육의료 및 사회복지부문 등은 평균치 이하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 주민비율, 영세민 수, 대중교통 대수, 도로율, 우편시설 수, 주택보급률, 의료인 및 의약품 판매업소 수, 병상수, 학원 및 유치원 수 등이 불량해 이의 해결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⑧ 서천읍의 경우 종합지수 0.173으로 전체 5위의 비교적 양호한 개발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경제, 교육의료 및 사회복지, 공공안전 및 재해부문이 부문별 평균치 이상인 반면 교통통신, 생활환경부문이 평균치 이하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 비율, 영세민 수, 제조업체 종업원 수, 주차장면적, 도로율, 주거지 및 시장면적, 범죄검거율 등이 불량해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⑨ 청양읍의 경우 종합지수 0.537로 전체 1위의 매우 우수한 개발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모든 부문이 부문별 평균치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저소득층 비율, 영세민 수, 제조업체 종업원 수, 포장률, 주거지 면적, 주택보급률, 교통사고발생률 등이 불량해 이의 해결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⑩ 홍성읍의 경우 종합지수 0.058로 전체 9위의 개발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인구, 지역경

제, 생활환경, 교육의료 및 사회복지부문이 부문별 평균치 이상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교통통신, 공공안전 및 재해부문이 평균치 이하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공공건설 사업비, 도로율 및 포장률, 주택보급률, 교사 1인당 학생수, 유치원 수, 소방공무원 및 공무원 수, 교통사고율 및 범죄발생률 등이 불량해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⑪ 광천읍의 경우 종합지수 -0.211로 전체 17위의 불량한 개발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모든 부문이 부문별 평균치 이하로 나타났으며 예금액, 주차장 면적, 도로율, 일반식품접객업소 수, 의료인 및 병상수, 관공서 및 공무원 수 등이 불량해 이의 해결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⑫ 예산읍의 경우 종합지수 0.1736으로 전체 6위의 비교적 우수한 개발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공공안전부문만 제외하고 모든부문이 부문별 평균치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도로율, 우편시설 수, 교사 1인당 학생수, 소방공무원 및 공무원 수, 교통사고율 등이 불량하게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⑬ 삽교읍의 경우 종합지수 -0.428로 전체 20위의 매우 불량한 개발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전부문이 부문별 평균치 이하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금액, 금융기관 수, 대중교통 대수, 주차장면적, 도로율, 공중전화 대수, 하수도 보급률, 주거지 면적, 일반식품접객업소 수, 의료인 및 병상수, 의약품판매업소 수, 영세민 수,

화재발생피해액 등이 불량해 이의 해결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⑭ 대산읍의 경우 종합지수 0.037로 전체 10위의 개발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교통통신과 생활환경부문을 제외한 전부문이 부문별 평균치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예금액, 대중교통 대수, 포장률, 상수도 및 하수도 보급률, 쓰레기발생량, 시장면적, 의료인 수, 의약품판매업소 수, 학원 수, 소방공무원 수, 관공서 및 주요기관 수 등이 불량해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⑮ 태안읍의 경우 종합지수 -0.094로 전체 14위의 개발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경제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이 부문별 평균치 이하로 나타났으며 제조업체 종업원 수, 주차장 면적, 도로율, 우편시설 수, 급수량, 교사 1인당 학생수, 소방공무원 및 공무원 수, 교통사고율, 범죄발생건 수, 관공서 및 주요기관 수 등이 불량해 이의 해결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⑯ 안면읍의 경우 종합지수 -0.158로 전체 15위의 개발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의료 및 사회복지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이 부문별 평균치 이하로 나타났으며 예금액, 제조업체 종업원 수, 대중교통 대수, 주차장 면적, 포장률, 공중전화 대수, 상수도보급률, 주거지 면적, 의료인 및 병상수, 학원 수, 화재발생 건수, 관공서 및 주요기관 수 등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⑮ 당진읍의 경우 종합지수 0.325로 전체 3위의 매우 우수한 개발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공공안전 및 재해부문을 제외한 전부문이 부문별 평균치 이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개별지표도 소방공무원 수를 제외한 모든 지표가 양호하게 나타났다.

⑯ 합덕읍의 경우 종합지수 0.085로 전체 8위의 비교적 양호한 개발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모든 부문이 부문별 평균치 이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급수량과 주거지 면적, 유치원 수, 관공서 및 주요기관 수 등이 불량하게 나타나 이의 해결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⑰ 염치읍의 경우 종합지수 -0.490으로 최하위의 개발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공공안전 및 재해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이 부문별 평균치 이하로 나타났으며 저소득층 수, 예금액, 금융기관, 대중교통대수, 공중전화 대수,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보급률, 주거지면적, 의약품 판매업소 수, 영세민 수, 학원수, 교통사고율, 범죄검거율 등이 불량해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⑱ 성환읍의 경우 종합지수 -0.183으로 전체 16위의 비교적 불량한 개발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모든 부문이 부문별 평균치 이하로 나타났으며 공공건설 사업비, 금융기관 수, 주차장 면적, 공중전화 대수, 우편시설 수, 상수도 및 하수도보급률, 주거지 면적, 주택보급률, 의료인 및 의약품 판매업소 수, 병상수, 관공서 및 주요기관 수, 공무원 수 등이 불량해 이의 해

결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㉑ 성거읍의 경우 종합지수 -0.253으로 전체 18위의 비교적 불량한 개발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경제와 공공안전 및 재해부문을 제외하고 부문별 평균치 이하로 나타났으며 예금액, 금융기관 수, 대중교통대수, 주차장면적, 공중전화대수, 우편시설 수, 상수도 및 하수도 보급률, 주거지 면적, 의약품판매업소 수, 교사 1인당 학생수, 학원수, 범죄검거율 등이 불량해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군청소재지와 일반읍의 개발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와 개발방향은 다음과 같다. 군청소재지의 경우 공공안전 및 재해부문을 제외하고 모든 부문이 부문별 평균치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거읍, 염치읍은 군청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소도읍중 최하위권의 개발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군청소재지 읍의 경우 공공안전 및 재해부문의 개별지표 확충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반면 일반읍의 경우 공공안전 및 재해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이 부문별 평균치 이하로 나타났다. 그러나 합덕읍의 경우는 거의 모든 부문이 평균치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일반읍의 경우 교통통신부문과 지역경제부문에 최우선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교육의료 및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인구규모별 개발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와 개발방향은 다음과 같다.

인구규모 1만인 미만인 소도읍의 경우 공공 안전 및 재해부문을 제외하고 부문별 평균치 이하를 나타냈으나 인구규모 1-3만인 소도읍은 지역경제와 교통통신을 제외한 전부문이 부문별 평균치 이상을 나타냈다. 또한 인구규모 3만 이상인 소도읍은 공공안전 및 재해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이 부문간 평균치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인구규모 1만 미만인 소도읍의 경우 모든 부문에 대한 균형적이고 지속적인 개발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1-3만인 소도읍은 특히 지역경제 부문과 교통통신 부문에 대한 중점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3만 이상인 소도읍의 경우 공공안전 및 재해부문에 대한 개발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각 소도읍별 개발수준을 5개 부문 34개의 지표를 활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수준측정을 위한 지표별 소도읍간 격차정도를 변이계수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부문별로는 지역경제부문이 가장 높으며 개별 지표별로는 제조업체 종업원수, 화재발생 피해액, 공공건설 사업비, 병상수 등에서 소도읍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통통신부문의 변이계수가 0.450으로

가장 낮았으며 개별지표별로는 자가용 대수, 우편시설 수, 주택보급률, 교사 1인당 학생수, 범죄검거율, 공무원 수 등이 0.2이하로 낮게 나타나 소도읍간 격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발수준을 소도읍별로 측정된 결과 종합지수는 청양읍 0.537, 논산읍 0.370, 당진읍 0.325, 금산읍 0.296, 서천읍 0.173으로 우수하게 나타난 반면 염치읍 -0.490, 삽교읍 -0.428, 연부읍 -0.270, 성거읍 -0.253, 광천읍 -0.211로 불량하게 나타났다.

또한 상위권에 속하는 소도읍들은 부문별 Z-score도 고른분포로 우수하게 나타난 반면 하위권의 소도읍들의 경우는 몇 몇 부문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불량하게 나타났다.

셋째, 개발수준을 군청소재지와 일반읍으로 구분하여 측정된 결과 군청소재지의 Z-score가 평균 0.100으로 일반읍의 -0.137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고, 부문별로는 교통통신부문이 군청소재지읍의 경우 0.216이나 일반읍은 -0.300, 지역경제부문이 군청소재지읍의 경우 0.180이나 일반읍은 -0.226로 나타나 비교적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넷째, 개발수준을 소도읍의 인구규모에 따라 측정된 결과 인구규모 3만 이상인 소도읍의 종합지수의 평균은 0.081, 1-3만 소도읍이 0.014, 1만 미만의 소도읍은 -0.371에 불과해 인구 규모가 큰 소도읍일수록 개발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1만 미만의 소도읍의 경우 공공안전 및 재해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이 불량하고, 1-3만인 소도읍은 지역경제와 교통통신부문이 불량하게 나타난 반면 3만 이상인 소도읍은 공공안전 및 재해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이 평균치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2. 결론

이상의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도읍간 격차가 가장 큰 부문은 지역경제분야로 나타났다. 개별지표별로는 제조업체 종업원수, 공공건설 사업비, 병상수, 화재발생피해액 등의 격차가 소도읍간에 크게 나타나 이의 해소를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군청소재지와 일반읍간의 개발수준 격차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군청소재지읍의 개발수준이 일반읍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교통통신과 지역경제부문의 격차가 심한 것으로 분석되어 일반읍의 경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인구규모별 소도읍 개발수준은 인구규모가 작을 수록 불량하게 나타났다.

인구규모 1만 미만의 소도읍의 경우는 대부분의 부문이 불량하며, 1-3만의 경우는 지역경제와 교통통신부문이 불량하다. 또한 3만 이상인 경우 공공안전 및 재해부문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양호하다. 따라서 소도읍 개발시 인구규모를 고려하여 개발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소도읍의 개발수준을 측정하고 파악하기 위한 공통된 지표설정은 아직까지 합의된 적이 없었다. 지금까지 개발수준측정을 위한 지표의 개발은 주로 대도시나 국가단위 위주로 연구되어 왔으며 소도읍의 개발수준 측정도 대도시와는 다른 특성 및 환경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적용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지표도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지표를 토대로 재구성하고 자료의 구득(求得)가능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기 때문에 소도읍의 발전수준을 완전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소도읍의 개발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지표와 더불어 주관적인 지표와 가중치부여도 고려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도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기재, “지역개발수준의 측정,” 지방행정연구, 제8권 제1호, 서울: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3.
- 김석홍, 소도읍 개발론:발전과정과 육성전략, 서울:박문각, 1995.
- 김영섭, 사회개발계획론, 서울:법문사, 1985.
- 김선기 외, 소도읍 특성별 개발모형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0.
- 김형국, 국토개발의 이론연구, 서울:박영사, 1984.
- _____, “도시생활환경진단과 그 기준에 관한 고찰,” 지방행정연구, 제3권 제3호, 서울: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8.
- _____, “소도읍기능의 기본구상,” 소도읍기능의 기본구상, 서울:내무부, 1977.
-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1994.
- 노춘희, “한국의 소도시 개발계획에 관한 연구:적정생활권 개념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고려대학교 대학원, 1980.
- 대전광역시, 삶의 질 최고도시를 향한 계획:신경영 행정기법의 도입과 실천, 대전:대전광역시 기획담당관실, 1994.
- 대한민국정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 1992.
- 이정환 외, “농촌중심도시의 유형구분과 특성 비교,” 농촌경제, 서울: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 정연길, “지방행정의 행정능력수준 비교연구,” 충북개발연구, 제6권 제1호, 청주:충북개발연구원, 1995.
- 중앙일보, 전국 74개시 비교평가 자료집:삶의 질 입체 분석, 서울:중앙일보사, 1995.
- 최상철, “소도읍개발의 편견과 오진의 극복,” 도시문제, 1977.
- 최영출, “지역발전도 측정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8권 제2호, 청주: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1.
- 충청남도, 소도읍기능화 종합계획 수립, 1977.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 모형설정에 관한 연구, 1988.
- 한표환 외, 도시지표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5.